

# 근거이론의 개념과 연구방법

최 지 영(나사렛대학교 교수)

## 1. 서론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란 통계적 과정이나 다른 양적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수한 연구방법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로부터 비수학적 분석과정으로 결과물을 추출하는 연구 방법이다. Creswell(1998)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로서 전기,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등을 들었다. 주로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 그리고 인간 행동과 기능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질적 연구는 제한된 맥락에서 연구자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관계(특히 상관관계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데 치중을 하는 양적 연구와는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나, 오히려 그러한 점 때문에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어떠한 현상을 수반한 경험들의 본질을 밝히려는 의도를 가진 연구에는 질적 연구방법이 효과적인데, 이는 질적 연구방법이 어떤 현상 뒤에 놓인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밝히고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의 생활이나 내면세계란 양적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실험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조용환, 1999), 현장연구를 통한 심리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질적 연구는 똑같은 현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어 그에 따른 상담의 치료적 접근을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상담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기본 요소로는 면담과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연구결과를 도출시키는 분석과 해석절차, 그리고 서면 혹은 구두보고 등을 들 수 있다.

질적 연구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왔는데, 일부 학자들은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연구자가 자신의 해석을 통해 자료와 결과를 정확히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론 정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화하여 사실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공식화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근거이론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연구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0).

## 2. 근거이론의 기초

근거이론은 기존의 이론이나 이미 정의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근거이론은 그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적합한 변수들과 적합치 않은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Stern(1980)은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체계적이며 과정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근거이론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 즉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가 창시하였고 그의 제자 Blumer(1969)가 발전시킨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Munhall, 2001).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Milliken & Schreiber, 2003). 즉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사회적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조사하고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독특한 상황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Glaser와 Strauss(1967)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의 주요 특징을 Strauss와 Corbin(1990)의 설명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 1) 연구문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이론을 정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깊이 탐구하기 위한 자유스럽고 유동성 있는 연구 질문이 필요하다.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연구문제는 “특정상황이나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과정은 무엇인가?”이다.

### 2)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민감성이란 자료 속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연구자의 능력으로 전문적인 경험 및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적인 문헌으로부터 형성된다. 또한 이론적인 민감성은 분석과정 그 자체에서도 중요한데, 즉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에 대해 질문을 던져서 비교하고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개념과 그들의 연관성에 대해 잠정적으로 이론적인 기틀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론적인 민감성이 이해와 통찰력이 요구된다.

### 3) 문헌고찰

근거이론에서의 문헌고찰은 자료 분석을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완전한 진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자료로서 취급되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연구의 종결부에 가서는 연구자는 기존의 문헌에서 얻게 되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 자신이 도출한 이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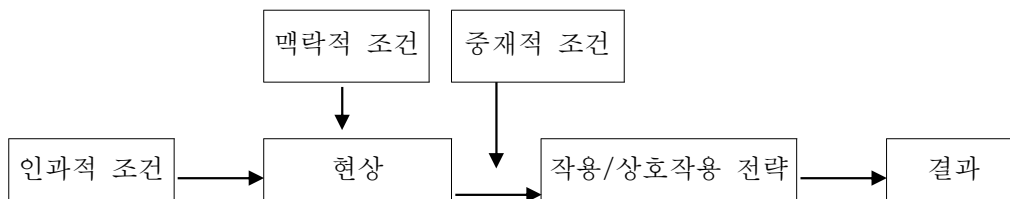
### 4) 부호화

#### (1) 개방 코딩 (open coding)

개방코딩은 면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키는 일종의 분석 작업이다. 범주화란 똑같은 현상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을 그룹 짓는 과정을 말하는데, 범주를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에는 그 속성에 의거해서 하게 되며, 그 때 속성은 일정하게 차원화된다. 즉 속성은 범주의 특성이고 차원은 연속선상에서 속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 (2) 축 코딩 (axial coding)

축 코딩은 범주나 하위범주들을 패러다임에 따라 관계를 짓는 것이다. 즉 범주들은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들을 나타내는 범주에 따라 연결된다(그림 1). 현상(phenomena)은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이다.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거나 발전하도록 하는 사건을 말한다. 맥락(context)은 어떤 현상이 놓여져 있는 일련의 속성들의 구체적인 나열이며,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특정한 맥락 내에서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작용하는 조건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전략이며,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특성이 있다. 결과(consequence)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를 말한다. 축 코딩을 하는 동안에 연역적으로 제안된 모든 가설적인 관계는 계속 얻어지는 자료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증될 때까지 임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 그림 1 > 패러다임 모형 (Strauss & Corbin, 1990)

###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 코딩은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킨 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만들고 그러한 관계진술문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범주를 좀 더 정련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모든 범주들이 하나의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이론이 구축되는 과정으로서, 이야기 윤곽을 통해 핵심 범주를 찾아내고, 중심 현상과 다른 범주들과의 관계를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만든 후 가설을 도출하여 근거이론으로 제시를 한다.

## 5) 과정(process)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을 순서적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작용·상호작용이 중재적 상황 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의 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은 진행적인 특성이 있고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적인 과정이며, 주로 기(phase)나 단계(stage)로 표기한다.

## 6) 상황모형(conditional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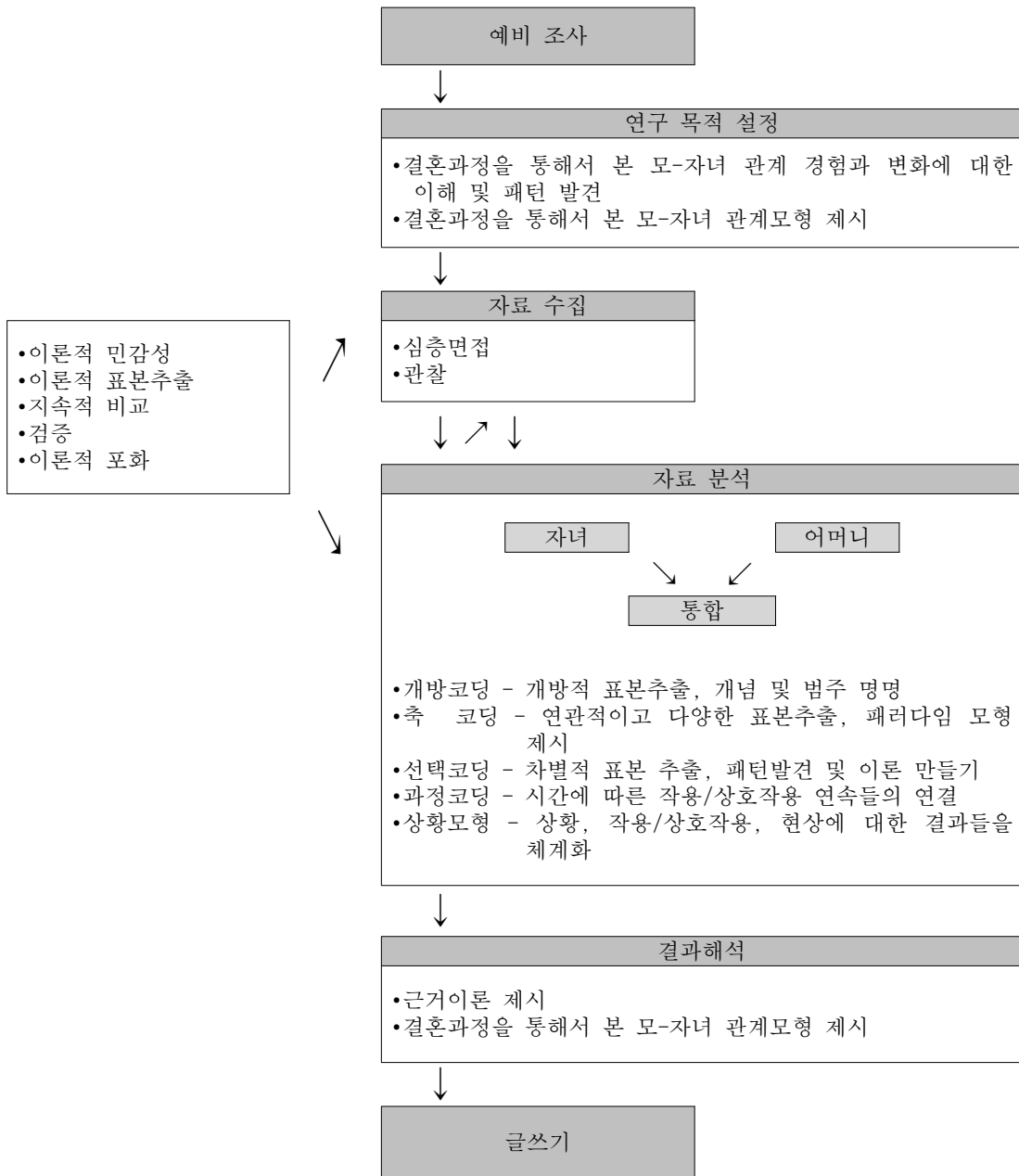
상황모형은 연구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상황적 조건(인과적, 맥락적, 중재적)과 결과가 작용·상호작용과 얽혀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상황모형은 상황경로를 따라가면서 도식화할 수 있는데, 다양한 수준에 있는 각각의 조건적 상황과 작용·상호작용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상황경로이다.

과정코딩이나 상황모형에 대해서는 Strauss와 Glaser 간에 이견이 있다. Strauss는 이것들을 제안하는 데 반해 Glaser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둘 다 선택 코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선택코딩을 거친 이론제시야말로 근거이론의 핵심부분이다. 만일 개방코딩 및 축코딩과 그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친다면, 이는 Strauss와 Corbin이 그들의 책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적 연구일 뿐 근거이론은 아닌 것이다. 질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근거이론의 코딩 개념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개념화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것을 장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거이론이 될 수 없음을 저자들은 명시하고 있다.

## 3. 근거이론 연구의 진행과정

근거이론 연구의 진행은 예비 조사,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 및 글

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최지영, 2008).



<그림 2> 근거이론 연구의 진행 과정

## 4. 근거이론의 실제

논문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가정을 중심으로”(최지영, 2009)를 통하여 근거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을 결혼식을 중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결혼에 대한 확장적 조망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 결혼과정(marriage proc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결혼과정이란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정서, 환경, 가족관계, 신앙 등의 상호작용방식으로 보고자 한다. 결혼과정은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적 단계(transitional period)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함께 살았던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분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를 결혼시킴으로써 역할의 변화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얻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조부모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과정은 자녀와 어머니 모두의 발달적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전환기적 단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다양한 모습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자녀 관계 특성을 탐색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자녀 관계변화의 과정적 탐색을 통해 모-자녀 관계변화의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기초로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그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적합한 변수들과 적합치 않은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근거이론으로 수행한 이유는 첫째, 결혼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실제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연구 질문이 과정에 관한 것일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셋째, 결혼과정에 나타나는 모-자녀관계를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 환경, 신앙 등 요소들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로부터 비롯된 근거이론이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방법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개방적 표본추출(open sampling)을 위해 기독교가정 중에서 결혼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자녀 12명과 그들의 어머니 12명 등 총 24명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관적이고 다양한 표본추출(relational and variational sampling)을 위해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아들과 딸을 고루 선정하였으며, 또한 결혼기간을 염두에 두어 신혼기 자녀, 결혼 5년 이내 자녀, 10년 이내 자녀, 10년 이상 된 자녀들을 고루 면접하였다.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결혼과정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결혼과정에 대한 해석적 논의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을 심층면접 할 때에는 결혼과정을 경험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차별적 표본추출(discriminate sampling)을 위해서는 부족하게 발전된 범주를 메우기 위한 보충질의 및 사후관찰을 통한 보충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을 실시할 때에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와 자녀를 따로 면접을 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녹음되며 전사될 것임을 밝히고 허락을 받았다.

##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2006년 10월에 결혼준비과정 중에 있는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된 딸과 어머니 등 4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에서 얻게 된 사전 지식을 기초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확립하여 본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면접을 실시하는 도중에도 즉각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면접 질문을 지속적으로 수정시켜 나갔다. 본 면접은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범주의 포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독교가정의 자녀 12명(아들 6명, 딸 6명)과 그들의 어머니 12명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각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가량이었으며 전사한 원자료는 A4용지 315장 분량이었다.

연구 질문의 기본적인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결혼 전 어머니(자녀)와는 어떤 사이였는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가족분위기는 어떠했는가? ②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순탄했는가? 어려움이 있었는가? 만일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가? ③ 결혼을 한 후 어머니(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변화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④ 결혼을 한(시킨) 후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혼을 한(시킨) 후 변화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⑦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어머니)/배우자/신앙인으로서 ⑧ 결혼(자녀의 결혼)이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질문의 범주일 뿐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참여자들의 이야

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관찰한 내용들을 확인하기위한 질문들이 연구대상자들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질문의 형태로 추가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면접은 연구자 1인이 실시하였고 코딩의 객관성을 위하여 연구자와 다른 분석가 1인이 각기 코딩한 결과물을 상호비교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상담전문가 3인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범주를 확정했으며 연구대상자 6인에게 결과물을 알리고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의 평가를 위해 근거이론연구의 평가방법으로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시한 첫째, 타당성, 신뢰성, 신빙성, 둘째, 이론 그 자체에 대한 판단, 셋째, 연구 과정의 적절성, 넷째, 연구의 경험적 근거 등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삼각검증법을 포함하여 분석의 각 과정마다 다른 분석가와 논의하며 수정 보완 작업을 하며 확인과 검증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개방코딩: 근거자료 분석에 의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근거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녀의 경우는 50개의 개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비슷한 개념끼리 서로 묶은 결과 얻게 된 범주는 25개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50개의 개념과 28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 축 코딩: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자녀와 어머니의 패러다임 모형을 정리하면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자녀의 결혼과정 패러다임

개념	범주	패러다임
심리적 고통		
이상추구	욕구충족적 성향	
자기중심적 사고		
충동적 태도		인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적
어머니에 대한 인식		조건
신앙적 모델링	어머니의 모델링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에 대한 원망 및 갈등	어머니에 대한 원망 및 갈등	
밀착된 경계	밀착된 경계	
명확한 경계	명확한 경계	맥락
원활한 의사소통		
거절당한 경험	경직된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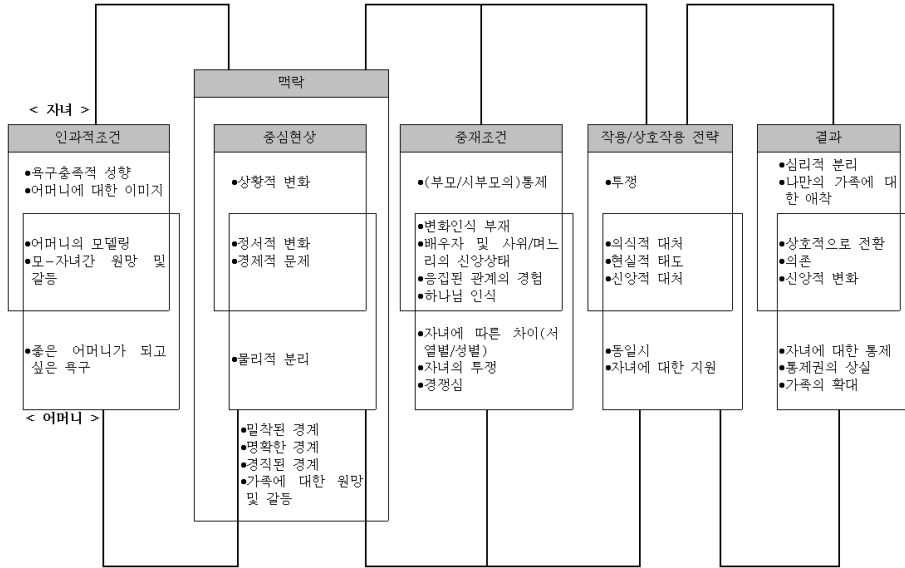
<표 2> 어머니의 관계변화 인식과정 패러다임

개념	범주	패러다임
자녀를 위한 희생	어머니로서의 모델링	
자녀에 대한 원망 및 갈등	자녀에 대한 원망 및 갈등	인과
완전한 어머니가 되고 싶은 욕구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욕구	적
충분히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욕구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욕구	조건
밀착된 경계	밀착된 경계	
명확한 경계	명확한 경계	
경직된 경계	경직된 경계	맥락
가족간의 갈등	가족에 대한 원망 및 갈등	
고부갈등		
남편에 대한 원망 및 갈등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정서적 변화	현상



경직된 경계				부정적 정서			
배우자에 대한 원망 및 갈등	가족에 대한 원망 및 갈등			분리불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 및 갈등				신앙생활의 공유에 대한 욕구			
생활의 변화	상황적 변화			자녀에 대한 염려			
환경의 변화		현상		정서적 만족			
부정적 정서	정서적 변화			자녀 결혼에 대한 양가감정			
긍정적 정서				경제적 부담	경제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문제			거주지역의 분리	물리적 분리		
시부모의 통제	(부모, 시부모의) 통제			변화를 못 느낌	변화인식 부재		
어머니의 통제				사위(며느리)의 신앙 유무	사위(며느리)의 신앙상태		
변화를 못 느낌	변화인식 부재			가족간의 응집된 관계	응집된 관계의 경험		
배우자의 신앙 유무	배우자의 신앙상태	중재		자녀의 서열과 성에 따른 차이	자녀에 따른 차이(서열		
원가족의 응집된 관계		조건		이	별, 성별)	중재	
친구와의 응집된 관계	응집된 관계의 경험			전통적 결혼관		조건	
배우자와의 응집된 관계				자녀의 의지관철을 위한 싸움	자녀의 투쟁		
하나님 인식	하나님 인식			며느리와 경쟁관계			
의지관철을 위한 싸움	투쟁			사돈과 경쟁관계	경쟁심		
신앙생활의 공유	신앙적 대처			자녀에 대한 욕심			
신앙에 의지				하나님 인식	하나님 인식		
갈등 회피				사고의 전환			
관심의 분산		작용/		독립적 태도			
독립적 태도		상호		의식적인 행동	의식적 대처		
사고의 전환	의식적 대처	작용		책임감 증가		작용/	
억제		전략		합리화		상호	
의식적인 행동				현실을 우선시 함	현실적 태도	작용	
책임감 형성				신앙에 의지	신앙적 대처	전략	
합리화				며느리와의 동일시	동일시		
현실을 우선시 함	현실적 태도			자녀와의 동일시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분리			경제적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	나만의 가족에 대한 애착			신앙적 지원			
핵가족에 대한 애착				상호적 관계	상호적으로 전환		
어머니에 의지	의존			자녀와 응집된 관계 형성			
의존적 태도		결과		자녀에 의존	의존		
상호적 관계				자녀에 대한 주도권	자녀에 대한 통제		
어머니에 대한 관심	상호적으로 전환			신앙생활과 효도의 동일시	통제권의 상실	결과	
어머니와 응집된 관계 형성				흔들리는 통제권			
신앙생활의 변화	신앙적 변화			신앙생활의 분리			
				신앙에 몰두	신앙적 변화		
				신앙적 재발견			
				가족구성원의 증가	가족의 확대		

이번에는 자녀의 관점과 어머니의 관점의 두 패러다임 모형을 통합하여 도식화하고자 한다. 통합모형에서 자녀의 패러다임 모형은 상단부에, 어머니의 패러다임 모형은 하단부에 배치하였다. 자녀의 패러다임 모형과 어머니의 패러다임 모형이 중첩되는 부분은 둘 사이의 공통점을 나타내며, 나머지 부분은 둘 사이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두 모형에 있어서 맥락은 동일하였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자녀와 어머니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그림 3>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의 통합 패러다임모형

**선택코딩: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에 관한 근거이론 제시**

**이야기 윤곽**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에 대한 근거이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자녀와 어머니 각각의 이야기 윤곽을 만든 후, 그 둘을 통합하여 통합적 이야기 윤곽을 제시하고 핵심범주를 선택하였다. 통합적 이야기 윤곽은 다음과 같다.

결혼과정을 경험하는 기독교가정의 자녀와 어머니는 그동안 원망과 갈등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자녀에게 신앙적, 희생적 본을 보여 왔으며 자녀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에 새겨왔다.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는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가족 안에서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계(밀착된/ 명확한/ 경직된 경계)를 이루며 가족 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원망과 갈등도 느끼면서 살아왔다. 그들은 이제 결혼이라는 사건을 맞이하면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특히 경제적 문제는 모-자녀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이때 두드러지는 차이는 자녀는 생활과 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크게 느끼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물리적인 분리만을 느끼며 정서적인 문제인 분리 불안이나 상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와 자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기도 하며, 배우자 및 사위/며느리의 신앙상태나 응집된 관계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에 대한 부모나 시부모의 통제가,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서열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 자녀의 투쟁, 며느리에 대한 경쟁심 등이 그들의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자녀는 의식적으로 대처한다거나 현실적인 태도를 갖는다거나 신앙적인 대처를 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자녀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어머니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을 하기도 하였으며,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신앙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자신을 자녀와, 혹은 며느리와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머니와 자녀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하기도 하고 여전히 의존하기도 하며 신앙에 몰두하거나 신앙적 재성찰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며 자신만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며 자녀의 결혼과정을 가족의 확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상의 통합적 이야기 윤곽을 통해서 볼 때,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의 핵심범주는 ‘정서적, 상황적 변화로 인한 모-자녀 관계의 확장 또는 분리’라고 할 수 있다.

### 근거이론 제시

핵심범주를 토대로 근거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설적 정형화 단계를 거쳤다. 가설적 정형화를 위하여서는 각 사례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확인하고 자료를 그룹 짓는 과정에서, 경계(boundary)와 권력(power)이 중요한 단서가 됨을 발견하여, 그 둘을 통합한 범주로서 어머니의 경우는 ‘통제’, ‘의존’, ‘의례’, ‘희생’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자녀의 경우는 ‘통제’, ‘거부’, ‘의존’, ‘의례’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전개해 나간 결과, 16가지 경우를 가설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었다(표 3).

<표 3> 가설적 정형화

자녀 \ 어머니	통제	의존	의례	희생
통제	(1)	(5)	(9)	(13)
거부	(2)	(6)	(10)	(14)
의존	(3)	(7)	(11)	(15)
의례	(4)	(8)	(12)	(16)

(1) 통제 vs. 통제 (2) 통제 vs. 통제거부 (3) 통제 vs. 의존 (4) 통제 vs. 의례 (5) 의존 vs. 통제 (6) 의존 vs. 의존거부 (7) 의존 vs. 의존 (8) 의존 vs. 의례 (9) 의례 vs. 통제 (10) 의례 vs. 의례거부 (11) 의례 vs. 의존 (12) 의례 vs. 의례 (13) 희생 vs. 통제 (14) 희생 vs. 희생거부 (15) 희생 vs. 의존 (16) 희생 vs. 의례 (이상 어머니 vs. 자녀 순으로 표기)

이러한 16가지 가설적 정형화 결과에 기초하여 그에 해당하는 16가지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가지고 다시 근거자료로 돌아가 비교함으로써 7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 이론으로서 연구자는 이상에서 발견한 7가지 유형을 근거 이론으로 제시하는 바이다(표 4). 각 유형별 전형적 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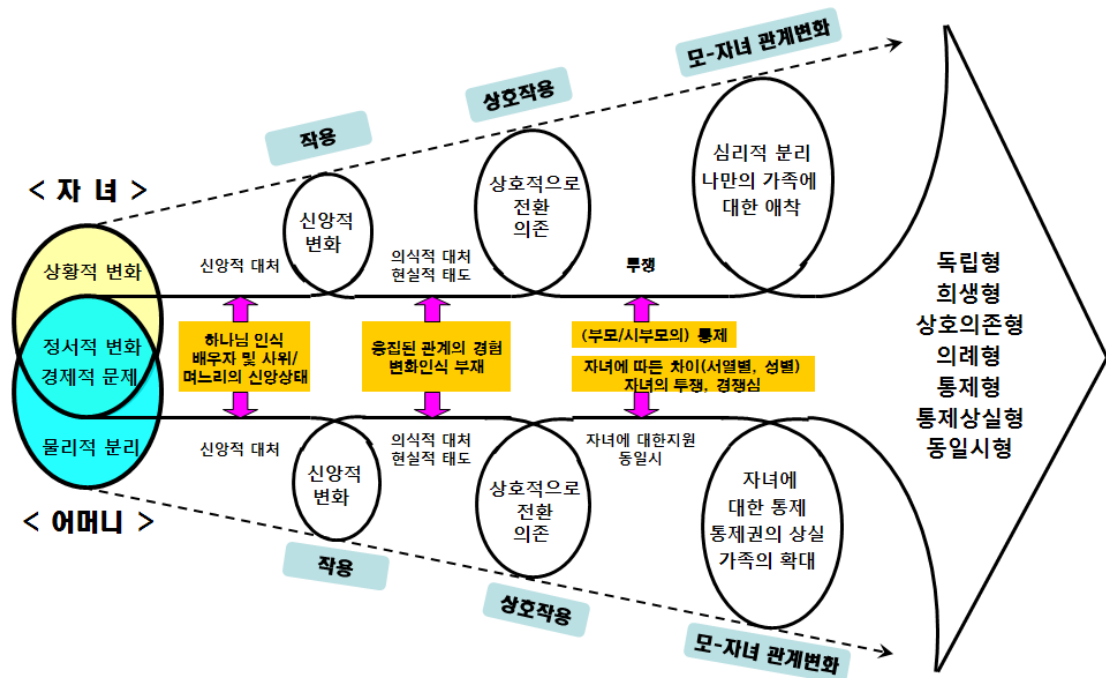
[통제상실형/ 통제형/ 상호의존형/ 독립형/ 의례형/ 희생형/ 동일시형의 전형적 사례제시]

<표 4>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 이론의 7가지 유형

구분	결혼과정에 나타난 특징 (어머니 vs. 자녀)	해당 사례
1. 통제상실형	어머니는 자녀를 통제하려하나 자녀는 이를 거부하여 어머니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유형 (통제 vs. 통제거부)	사례 4
2. 통제형	어머니는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는 어머니에게 의존하거나 또는 의례적으로 여기는 유형 (통제 vs. 의존/의례)	사례 2, 9, 7
3. 상호의존형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유형 (의존 vs. 의존)	사례 1
4. 독립형	어머니는 의례적으로 여기는데 자녀는 이러한 어머니에게 불만을 느끼며 거부하는 유형 (의례 vs. 의례거부)	사례 12
5. 의례형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의례적으로 대하고 별다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머니는 의례적인데 자녀는 의존하는 유형 (의례 vs. 의존/의례)	사례 10, 3, 6
6. 희생형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는 어머니에게 의존하거나 의례적으로 여기는 유형 (희생 vs. 의존/의례)	사례 5,11
7. 동일시형	자녀가 딸인 경우, 어머니는 딸을 통제하고자하나 딸이 통제를 거부하거나 혹은 의례적인 경우에, 이제는 더 이상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딸에게 동일시하는 유형 (통제불가 vs. 통제거부/의례)	사례 8

## 상황모형

상황모형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는 단계로 다양한 종류의 상황적 조건과 결과가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얽혀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의 상황모형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 상황모형

상황모형에서는 통합 패러다임모형에서의 현상을 맨 왼쪽에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모-자녀 관계변화 유형을 맨 오른쪽에 나타내었다. 나선형의 선은 통합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 부분에 나타난 범주들을 작용, 상호작용, 모-자녀 관계변화 차원으로 분류한 후 배치한 것이며, 모형의 한가운데에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흐르는 화살표의 가운데에 배치된 범주들은 중재조건들이다. 또한 각 중재조건들로부터 위아래로 연결된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그에 해당하는 전략들이 배치되어 있다. 상황모형의 내용을 묘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가 결혼과정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현상에는 자녀의 경우 상황적 변화, 정서적 변화,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정서적 변화, 경제적 문제와 함께 물리적 분리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녀와 어머니가 ‘하나님인식’

과 ‘배우자 및 사위/며느리의 신앙상태’라는 중재조건에 의해 ‘신앙적 대처’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신앙적 변화’라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응집된 관계의 경험’과 ‘변화인식 부재’라는 중재조건에 의해 ‘의식적 대처’와 ‘현실적 태도’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상호적으로 전환’하거나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자녀의 경우에 ‘(부모/시부모의) 통제’라는 중재조건에 의해 ‘투쟁’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심리적 분리’와 ‘나만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라는 결과가,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에 따른 차이(서열별/성별)’와 ‘자녀의 투쟁’, 그리고 ‘경쟁심’이라는 중재조건에 의해 ‘자녀에 대한 지원’과 ‘동일시’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통제’, 혹은 ‘통제권의 상실’, 그리고 ‘가족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경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모-자녀 관계의 7가지 유형을 맨 오른쪽에 그림으로써 그 관계를 과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신앙적 변화’는 *개인적 작용 차원*으로, ‘상호적으로 전환’과 ‘의존’은 *상호작용적 차원*으로, ‘심리적 분리’, ‘나만의 가족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통제’, ‘통제권의 상실’, ‘가족의 확대’는 가족 안에서의 *모-자녀 관계변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결혼을 과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근거이론을 통해 결혼과정에서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변화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결혼과정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 유형별 주요 특성(표 5) 및 전형적 사례에 대한 해석적 논의를 하고 어머니와 자녀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5> 유형별 주요 특성**

구분	주요 특성	모-자녀간 경계
1. 통제상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 및 갈등이 심했음</li> <li>- 어머니의 통제를 자녀가 투쟁을 통해 거부하며 해방을 추구함</li> <li>- 대화가 단절됨</li> </ul>	경계 변화 (밀착된 경계→ 경직된 경계)
2. 통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경쟁심과 자녀에 대한 지원이 돌보임</li> <li>- 어머니의 통제에 대해 자녀가 의존하거나 또는 의례적으로 여김</li> </ul>	경계 불변 (밀착된/ 경직된 경계 유지)
3. 상호의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두드러짐</li> <li>-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음</li> <li>-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의존함</li> </ul>	경계 불변 (밀착된 경계 유지)
4. 독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두드러짐</li> <li>- 어머니는 의례적인데 자녀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느끼며 어머니를 거부함</li> </ul>	경계 불변 (경직된 경계 유지)

5. 의례형	-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두드러짐 -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의례적으로 대하거나 어머니는 의례적인데 자녀는 의존하는 경우가 있음	경계 불변 (명확한 경계 유지)
6. 희생형	- 자녀는 욕구충족적 성향이 매우 강함 -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자녀는 이를 당연시 여김	경계 불변 (밀착된 경계 유지)
7. 동일시형	- 어머니의 삶이 힘들었을 경우 딸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두드러짐 - 어머니가 더 이상 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을 딸과 동일시함	경계 변화 (밀착된 경계→ 경직된 경계)

### 유형별 특성

[통제상실형/ 통제형/ 상호의존형/ 독립형/ 의례형/ 희생형/ 동일시형의 특성 제시 및 논의]

이상과 같은 7가지 유형은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본 연구의 면접사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연구대상자들 및 기타 모임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보고되어지는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의존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들 중에서는 사례 11의 어머니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남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유형이다.

[의존형의 특성 제시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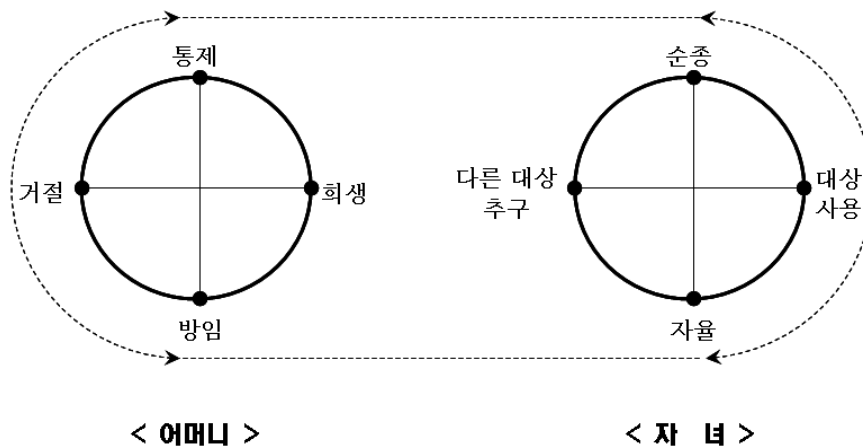
### 어머니와 자녀의 차이비교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의 통합 패러다임 모형(그림 3)”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관계에 대한 욕구 vs. 자기에 대한 욕구
- ② 정서적 상실감 vs. 삶의 총체적 변화
- ③ 자녀에 대한 지원 vs. 어머니에 대한 투쟁
- ④ 가족의 확대 vs. 가족의 축소(나만의 새로운 가족)

###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모형’ 제안

연구자는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요인들을 도식화하여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근거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범주와 속성들 중에서 모-자녀 관계를 도식화하기에 적합한 요소들을 찾아내었다. ‘권력’과 ‘양육적 돌봄’이라는 개념을 기본 축으로 설정하였는데, 어머니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는 권력을 나타내는 세로축으로, 다른 하나는 양육적 돌봄을 나타내는 가로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세로축의 맨 위는 ‘통제’로, 맨 아래는 ‘방임’으로 표시하였으며, 가로축의 맨 오른쪽은 ‘희생’으로, 맨 왼쪽은 ‘거절’로 표시하였다. 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권력의 축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세로축의 맨 위는 ‘순종’으로, 맨 아래는 ‘자율’로 표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적 돌봄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가로축의 맨 오른쪽은 ‘대상 사용’으로, 맨 왼쪽은 ‘다른 대상 추구’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 모형이 상호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점선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화살표로 작동함을 나타내었다.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모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모형

근거자료를 통해 실례를 찾아보면, 먼저 왼쪽에 위치한 어머니 모형의 경우, **통제**는 어머니가 자녀의 결혼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자녀에게 주택마련이나 혼수준비 등의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혹은 신앙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며 자녀를 통제하는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방임**은 자녀에게 어머니의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지 않고 자녀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으며 자녀의 일은 그냥 자녀에게 맡겨두려는 태도를 보인다. **희생**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집을 처분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며 심리적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는 경우다. **거절**은 자녀를 다른 형제와 차별대우하며 자녀가 결혼하기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하



고 정서적으로도 품어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오른쪽에 위치한 자녀 모형의 경우, **순종**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거나 결혼을 한 후에도 매일 어머니에게 기도수첩을 체크 받는다거나 고부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항상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자율**은 어머니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예이다. **대상 사용**은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니가 돌보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 등이다. **다른 대상 추구**는 결혼 전 어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던 자녀가 결혼을 통해 다른 대상인 배우자에게 애착을 느끼며 의존하게 되는 경우이다.

자녀들은 결혼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거절했던 어머니로부터 더욱 멀어지면서 다른 대상을 추구하기 위해 배우자와 연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용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배우자 둘 다에게 다중적으로 의존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사례들은 어머니의 권력과 양육적 돌봄, 그리고 그에 대한 자녀의 반응 정도에 따라 모형 안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모형을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모형’으로서 제안하는 바이다. 위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자녀 간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어머니와 자녀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이동하며 위치할 수 있으므로,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단순히 대칭이 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하는 어머니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방임하는 어머니에게 반드시 자율적인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희생하는 어머니에게 반드시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거절하는 어머니에게 반드시 다른 대상을 추구하는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거자료에 의하면 자녀는 결혼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상이 생기면서 자신의 핵가족에 대해 애착을 느끼며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인 분리를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었던 데 반해 어머니는 결혼과정을 통해서도 자녀와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며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확대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결혼과정 이전에 이미 분리된 경계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또한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분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결혼과정에서 자녀와 어머니가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연구자는 결국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분리는 자녀의 역할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의 결혼과정을 통해서도 자녀에 대한 심리적 분리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공식화된 분리과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혼과정을 겪으면서도 자녀에게서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한다는 점은 결혼과정에 대한 심리상담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장창민, 최지영 (2007). 신학생의 신학하기에 대한 목회상담적 연구: 학부대학 신학전공자를 대상으로, *목회와 상담*, 9, 241-272.
- 장창민, 최지영 (2011). Conversion process and types: Based on autobiographies of Korean Christians.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예정)
- 최지영 (2004).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불안과 가족경계에 관한 목회상담 연구. *상담학연구*, 5(4), 1311-1330.
- 최지영 (2008).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지영 (2009). 결혼과정을 통해서 본 모-자녀 관계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가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697-1725.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res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CA: Sage Publications, Inc.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iken, P. J., & Schreiber, R. S. (2003). “당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없이 근거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 김미영 역. 서울: 현문사.
- Munhall, P. L. (2001).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3rd ed)*. Connecticut: Appleton-Century-Crofts.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 Corbin, J.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